광주시, 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 28일 재개관

사업비 40억 투입 리모델링… 관람환경 개선·체험 콘텐츠 설계
도자변천사 등 한눈에 '도자문화 보고'… 디지털 실감영상 체험
재개관 기념전 '분청, 새로움을 잇다' 12월 14일까지 전시실서

국내 대표 분청사기 전시관인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이 새단장을 마치고 오는 28일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북구 금곡동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을 재개관한다고 26일 밝혔다.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은 국가유산인 광주 충효동 요지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무등산 분청사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1998년 조성됐다.

전시실이 품고 있는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는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우리나라 가마의 구조를 이해하는 귀중한 역사적 자원이다. 청자, 분청사기, 백자 순으로 퇴적된 가마터를 통해 도자기 제작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출토된 분청사기에 새겨진 '광(光)', '어존' 등의 명문을 통해 왕실과 중앙에 납품했던 분청사기 생산지임이 확인됐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콘텐츠 개발 등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광주시는 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시비 20억원)을 투입해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년여 공사기간을 거쳐 모습을 드러낸 전시실은 쾌적한 관람 환경과 실감영상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담아냈다. 실감영상과 출토된 유물 등을 통해 우리나라 도자사와 당시 무등산 일대에서 활동한 사기장의 삶, 도자 제작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실은 크게 로비 공간, 실감 공간, 체험 공간 등 세 공간으로 나뉜다.

로비공간에 들어서면 충효동 가마터의 대표적 유물인 '어존'이 새겨진 잔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첨단 기술인 70인치 대형 투명디스플레이를 활용한 가마터 발굴 토층 축소 모형을 통해 분청사기에서 백자로의 변천과정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폭 30m에 달하는 대형 미디어월이 설치된 실감공간에서는 충효동 가마터 사기장의 삶과 분청사기 제작과정을 주제로 한 몰입형 미디어아트인 수묵 애니메이션이 상영된다. '빛으로 빚은 분청사기' 포토존에서 관람객이 직접 분청사기 무늬가 돼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체험 공간에서는 국가유산인 보물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 묘지(墓誌)'의 귀환 이야기와 '어존'이라고 음각된 귀얄로 분장된 분청사기 '마상배' 발굴 이야기도 투명 디스플레이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어 디지털 사기공방에서 나만의 분청사기를 만든 후 가마터 보호각에서 포토카드로 받을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 체험 공간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실 밖 가마터는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한 첨단설비를 적용한 보호각을 재설치했다. 국가유산인 가마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다.

전시실 '체험공간'에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재개관 기념전 '분청, 새로움을 잇다'가 열린다. 이 전시는 충효동 가마터에서 생산된 분청사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50여점을 통해 분청사기의 위대했던 과거와 전통을 되살리고,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재개관식과 전시실 관람 및 체험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관련 문의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062-613-5361)로 하면 된다.

임찬혁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재개관을 통해 광주의 대표 문화자원인 무등산 분청사기와 가마터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재단장한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을 많이 찾아주고 아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교류음악회 개최

순천-목포-광양시 소년소녀합창단, 감동의 하모니 선사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순천-목포-광양시 소년소녀합창단의 교류음악회를 오는 4월 5일 오후 3시에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목포·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초청한 교류 음악회로 동요와 가곡을 통해 아이들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주현)의 〈청산에 살리라〉와 〈두껍아 문지기〉로 시작된다. 이어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해리)은 〈감사해〉와 〈숲속을 걸어요〉를 부르고, 마지막으로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박호진)은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와 〈오리와 꽁지 빠진 닭〉 등을 선보인다. 또한, 세 합창단은 연합 합창 공연을 통해 감동적인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소프라노 박소은과 바리톤 김중권이 합창단 공연 중간 특별 출연하여 한국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곡으로 서로 다른 매력의 풍성한 공연을 선사한다.

순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이번 음악회는 지난 1년간의 열정적인 연습 결과를 선보이는 자리로, 3개 합창단의 하모니와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빛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며, 티켓링크 또는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문화예술회관(061-749-8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정성인 기자

"4월 도서관서 꽃핀다"… 광주시, 도서관주간 운영

시립도서관, 작가와 만남·카드지갑 만들기 등 프로그램 '다채'

광주광역시립도서관은 '제3회 도서관의 날'(4월12일)과 '제61회 도서관주간'(4월12~18). '세계 책의 날'(4월23일)을 맞아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

매년 4월12일은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도서관의 날'이다. 이 날로부터 1주간(4월 12~18일)이 '도서관주간'으로 1964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 4월23일은 '세계 책의 날'로 유네스코가 1995년 제정했다. 이에 따라 4월은 책과 독서 관련 다양한 강연과 행사가 열리는 달이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따른 시민들의 독서 관심을 반영해 더욱 의미있게 치러진다.

무등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을 기념해 ▲'눈부신 안부'의 백수린 작가와 만남 ▲팝업북 만들기 ▲자개 책갈피 만들기 ▲빅(BIG)북 전시 ▲'오늘 도서관 가봄' 캠페인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팝업북 만들기'는 버려진 책을 이용해 독서를 재구성, 창의성과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오늘 도서관 가봄' 캠페인은 대통령 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와 협업으로 미션 수행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해 성취감을 더할 수 있다.

사직도서관은 ▲문경민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이 좋아! 쿵쿵쿵 ▲'호텔 파라다이스' 원화 전시 ▲책 속에서 찾은 캘리 화분 등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서관이 좋아! 쿵쿵쿵'은 스탬프 투어에서 착안한 이벤트로 시민들이 도서관 구석구석을 누비며 자료실을 방문해 도서 3권 이상 대출, '퀴즈로 알아보는 도서관' 작성을 수행하면 종이가방 만들기 키트를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이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던 도서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스스로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수도서관은 ▲가죽공예 '도서관 회원증 카드지갑 만들기' ▲블라인드 도서 대출 ▲'천둥 꼬마 선녀 번개 꼬마 선녀' 원화 전시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서관 회원증 카드지갑 만들기'는 도서관 회원증을 꾸밀 수 있는 부속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패션 아이템'으로 승화시키도록 한다. 또 비치된 도서를 시민들이 릴레이로 필사하는 행사인 '필사적 기쁨'을 통해 광주시민이 독서를 통해 하나의 연대를 이룬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공한다.

/전혜정 기자

강진아트홀 봄 나들이 안성맞춤 전시 '풍성'

고 윤재우, 임춘택 기증전·김숙연 초대전 4월10일까지

강진아트홀이 오는 4월 10일까지 고 윤재우. 임춘택 기증전과 김숙연 초대전을 잇따라 연다.

강진이 고향인 고 윤재우. 임춘택 두 화백은 '내 고향 강진은;을 주제로 기증작품 중 30여점을, 김숙연 작가는 '그리고 봄 그리고'를 주제로 20여점을 선보인다.

고 윤재우 화백(1917~2005년)은 강진군 도암면 귤동에서 태어나 오사카 미술학교 서양화과 졸업후 조선대 미술과 교수, 대한민국 미술대전 추천작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강진군에 150점을 기증했다,

윤 화백의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근한 자연의 풍경을 담아 간략하게 표현하고 대상에서 직접적 이해가 아닌 여유로운 사색의 공간을 즐겨 표현한다.

임춘택 화백(1942~)은 강진읍 기룡 출신으로 조선대 미술학과 졸업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문화예술대상을 받았으며 강진군에 241점을 기증했다.

임 화백 작품은 남도의 향수가 선연한 향토색 짙은 풍경이나 사물을 화폭에 표현했다.

김숙연 작가는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순리를 뜻하는 바라보고 다시 그리는 화가의 경이로운 행위를 작품으로 진솔하게 표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고 윤재우 화백과 임춘택 화백의 작품 기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